

스피노자의 사유를 통해 본 라반의 심신평행론적 신체

나일화* · 이지선**

I. 서론	예술에서의 의미
II.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과 신체에 대한 사유	IV. 결론 참고문헌
III. 라반의 심신평행론적 신체와 무용	Abstract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루돌프 라반(Rudolf von Laban)의 에포트(effort) 이론을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의 사유와 비교하여 고찰해보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신평행론적 시각이 무용예술에서 갖는 의미들을 이끌어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신체와 그 움직임 표현들이 이성적 사유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무용작품에서 나타나는 춤추는 신체의 창조적 움직임을 미학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라반의 에포트 이론은 그가 고안한 무용기록체계인 라바노테이션(Labanotation)과 이로부터 발전된 움직임 분석(LMA, Laban Movement Analysis), 바르테니에프 기초원리(BF, Bartenieff Fundamentals), 에포트-셰이프 분석(Effort-shape Analysis)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현재 안무, 교육, 치료 등

* 주저자, 이화여대, 중앙대 강사.

** 교신저자, 이화여대 무용학연구소 연구교수, kitri1118@naver.com

의 무용 영역 뿐 아니라 연극, 스포츠, 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무용교육 방법 및 교수자료의 개발이나 교육 현장에의 적용, 라반 움직임 분석을 사용한 작품 또는 안무가 분석, 문화 인류학적 연구, 무용치료 등으로 대부분 무용의 실제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라반의 사상과 에포트를 중심으로 한 그의 무용이론을 스피노자의 철학적 사유와 연관시키고, 이를 근거로 라반의 신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무용미학적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앞선 연구들과의 차별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라반과 스피노자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유사한 견해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라반의 사상과 이론을 살피는데 있어서 17세기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사유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철학이 서양철학의 전통적인 이원론적 사고와 이성중심주의 인식론을 합리적이고 기하학적인 방식을 통하여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춤추는 신체의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당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데카르트(Rene Descartes)의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정신과 신체의 이원화 된 사유에 대척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신체에 정신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의 사유는 오늘날 무용미학에서 주목하는 니체(F. W.

1) 라반의 에포트 이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희(2013),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the LMA/BF in Teaching Ballet, 『대한무용학회지』, 71(1): 176-193.

이경희(2012),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과 에릭 홉킨스(Erick Hawkins) 작품에 나타난 움직임 표현비교분석 연구 -BESS(Body, Effort, Shape, Space)을 활용하여-, 『대한무용학회지』, 70(4): 125-144.

N. Salazar Sutil(2012), Laban's Choreosophical Model: Movement Visualisation Analysis and the Graphic Media Approach to Dance Studies, *Dance Research: The Journal of the Society for Dance Research*, 30(2), 147-168.

김재리(2011), 루돌프 라반(Rudolf Laban)의 '움직임 공간' 특성에 근거한 안무학적 분석 모형 개발 : 공간조화(Space Harmony)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이명주(2012), 라반의 Effort Factor에 의한「죽음의 춤」의 캐릭터 움직임 의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2(5): 311-312.

Nietzsche)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오히려 은유적인 표현으로 춤과 신체를 언급했던 니체보다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의를 펼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과 신체에 대한 사유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3장에서는 라반의 사상과 에포트 이론을 스피노자의 사유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심신평행론적 시각을 지닌 신체가 무용 예술에서 갖는 의미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를 경유하여 신체는 이원화 된 심신론에서의 대상화 된 객체가 아닌 ‘정신과 관련되어 미치는 그것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나아가 20세기 현대무용을 이끌었던 라반의 무용사상과 이론에 내재되어 있던 신체의 능동적인 역할과 표현들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II.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과 신체에 대한 사유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 장에서는 동시대에 심신이원론을 주장했던 데카르트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그의 신체에 관한 사유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의 저서 『에티카 *Ethica*』(1677) 제 3부의 명제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보고, 이러한 사유가 춤추는 신체에 갖는 시사점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

근대는 중세의 절대적인 가치이자 진리의 주체였던 ‘신’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이 독립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의 인간에게 이성적 사유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자 동시에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되었다. 데카르트는 신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대체시키기보다는 무한한 실체인 신과 유한한 실체들을 분리시켰다. 신과 인간의 세계를 구획지음으로써 그는 종교를 인

정하면서 동시에 관념적 사유로써 자연의 인과적 법칙들을 밝히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이원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유의 관념과 표상능력을 통해서 물질과 자연을 파악하고자 했던 그는 인간의 정신과 그 사유대상을 하나의 세계 안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다시 한 번 더 인간 세계를 이성을 가지는 사유 실체와 공간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외형적 변화를 가지는 연장 실체로 나누게 된다.²⁾ 이로써 그의 이원화 된 사상에서 신체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연장의 속성으로 인해 물질로 인식되었으며, 신체의 경험, 신체를 통한 감각들은 올바른 정신의 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데카르트에게 신체는 사유의 대상이자 필연적으로 정신보다 열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으며, 이로부터 그는 인간의 사유는 신체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른다.³⁾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적인 사유는 서양철학의 오랜 역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춤추는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신체성을 부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사유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의 이원론적인 세계가 지닌 한계를 비판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신의 세계와 정신세계, 그리고 물질세계들로 실체를 분리함으로써 신의 존재와 과학적 사고의 자유로움은 획득했지만, 분리된 세 개의 실체들 간의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는 인식론은 물론 심신론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사유의 오류들을 야기시켰다.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철학의 오류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가 분리시켰던 세 개의 실체(세계)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무한한 신의 실체를 만물과 자연에 내재하는 속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체들 간의 존재론적 위계를 철폐한다. 그의 철학에 이르러 자연은 비로소 이성에 대해 수동적이고 정적인 상태

2) 나일화(2008), 스피노자(B. Spinoza)의 심신이원론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신체와 표현의 의미, 『무용예술학연구』 24, pp.33-34.

3) 르네 데카르트(1644), 『철학의 원리』, 원석영(역)(서울: 아카넷, 2002), pp.16-18.

4) 박삼열(2012),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경기도: 선학사), p.23.

를 벗어나 능동적이고 활기 있는 것으로 변모하며, 인간의 신체 또한 그것의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 욕망, 정념 등의 본능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정신과 신체는 분리된 실체가 아닌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동일한 것으로 설명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의 사유가 구성하는 관념과 신체를 통해서 표현된 형상들은 서로 평행을 이루며 하나의 실체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의 사유에서 이원화 되지 않고 서로 연결된 정신과 신체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계적인 갈등관계에서 벗어나며, 이와함께 신체의 경험과 감각이 증가할수록 사유의 인식 능력도 증대될 수 있는 등가성(isonomie)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과거 인간의 이성이 독점했던 사유의 인식차원을 신체의 영역과 나누어 가지고, 인간의 신체가 지니는 능력에 대하여 긍정할 수 있는 변화를 낳게 된다.

또한 스피노자가 언급하는 정신과 육체의 관계는 춤추는 신체의 논의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정신이 직접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 상태(affection)에 관한 관념이다. 육체의 상태 자체는 정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정신은 육체적 영향의 상태와 본성을 정확하게 표상하는 관념에 영향을 받는다.”⁶⁾는 것이다. 이는 그가 비록 사유 속성을 강조하였으나 정신에 미치는 신체의 영향력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육체활동과 사유활동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심신평행론적인 견해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사유로부터 춤추는 신체는 무한한 세계를 경험하는 연장실체이자 일상적인 신체보다도 더 많은 감각과 심리적 표현들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사유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5) 등가성이란, 가치가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교환이 가능한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뜻한다.

6) 이성환, 박은옥(1999), 『합리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서울: 도서출판 백의), p.157.

2.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체는 정신을 사유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정신도 신체를 운동이나 정지로 그리고 (만약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⁷⁾

스피노자는 『에티카』 제3부 ‘정서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에서 정신과 신체에 관한 사유를 자신의 논리적인 명제들로 서술한다. 그는 여기에서 정신과 신체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심신평행론의 견해를 드러낸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가 갖는 관념들은 단지 정신의 사유를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도 얻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데카르트처럼 정신을 통한 이성적 사유와 신체의 열등한 감각의 구별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타당한 관념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스피노자에게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관념을 얻는 방식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정신이 능동적으로 작용하거나 수동적으로 작용을 받는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신체의 능동적 작용이나 수동적 작용과 일치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피노자의 ‘신체에 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오랜 역사동안 신체는 정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운동하기도 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신체의 활동 또한 오직 정신의 의지나 사고력에 의존하여 행동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지속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은 아무도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그는 한 번도 밝혀진 바 없는 신체의 구조와 신체의 활동에 대한 사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사유는 서양전통철학의 이성중심주의 전통과 당대의 주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탐색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논리적이고 기하학적인 명제들로 해명해나가는 방식으로 개진된다.

가장 먼저, 스피노자는 신체가 지닌 능력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든다. 예컨대,

7) 『에티카』 제3부 정리 2의 명제는 정신의 사유가 신체를 통제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서양 철학의 전통 및 당대 주요한 사상가였던 데카르트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B, 스피노자(1657). 『에티카』, 강영계(역)(파주: 서광사, 1990), p.133.)

‘인간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많은 것들이 동물에게서 발견되기도 하고, 몽유병자가 잠든 상태에서 오히려 깨어있을 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예시들은 단순한 본성의 힘을 가진 신체가 이성적 사유를 가진 정신을 놀라게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정신이 무엇을 매개로 하여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 신체에 어떠한 정도의 운동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 신체의 활동이나 움직임의 원인이 정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정신에 의해서 신체가 작용한다면 반대로 신체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에 정신도 사유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체가 잠들었거나, 죽어 움직이지 못할 경우 정신도 동시에 신체와 함께 무의식 상태에 머물고, 깨어있거나 살아있을 때처럼 사유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그동안 신체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과학적 고찰이 부재했음을 각성하는 한편, 그로부터 더 나아가 어떠한 대상을 사유하는데 있어 정신의 사유보다 오히려 신체가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젖 먹이가 젖을 먹는 것, 성난 소년이 복수를 원하는 것, 겁쟁이가 도망을 치는 것 등은 당시에는 그들의 자유의지 즉, 이성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행동과 욕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결단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가 갖는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화한다. 스피노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의 힘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경험하는 정서를 정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제3부 정리 10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한다. “우리 신체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런 관념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에 반대된다.”⁹⁾ 이것은 앞서 그가 언급했던 정신의 작용이 없이도 활동이 가능한 신체의 예시, 그리고 이제껏 논의된 바 없는 신체의 경험과 정

8) 앞의 책, p.134.

9) 앞의 책, p.141.

서에 대한 인식 능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정신이 구성하는 관념은 신체가 경험하는 것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정신과 사유는 신체의 경험과 활동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신체의 활동능력이 감소하면, 정신의 능력은 감소하고, 신체의 활동능력이 증가할수록 정신의 능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스피노자의 사유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신체활동의 능력과 경험을 증가시키는 춤추는 신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정한 신체가 다른 신체에 비해서 동시에 많은 작용을 하고, 외부의 많은 작용을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 역시 많은 것을 지각하는데 유능해진다면',¹⁰⁾ 춤추는 신체가 지니는 지각의 월등함, 보다 많은 정서의 경험, 그리고 폭넓은 관념의 구성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피노자를 거쳐 신체는 그것의 구성과 능력을 인정받으며 정의 내려진다. 그는 신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첫째, 신체는 무한히 많은 분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신체의 개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신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들, 빠름과 느림의 관계들이다. 그리고 둘째, 신체는 다른 신체들을 변용(affectio)시키고 다른 신체들에 의해서 변용된다. 여기에서 변용이란, 신체가 다른 신체를 만났을 때의 능동적인 작용 또는 외부의 작용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¹¹⁾ 이와 같은 스피노자의 신체 정의는 신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이자 신체의 구성에 대한 역학적이고, 다른 신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행동학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사유는 신체의 운동하고 정지하는 활동에 대한 섬세한 고찰과 무엇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신체의 무한한 변용들을 미분적인 위도와 경도의 차이들로 나타낼 수 있는 논리를 가진다.

스피노자는 이원화 된 사유방식들을 벗어나서 정신과 대립하지 않는 신체에 주

10) 안토니오 다마지오(2003), 『스피노자의 뇌』, 임지원(역)(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7), p.245.

11) 질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변용에 대하여 '이전 상태보다 더 큰 혹은 더 적은 완전성을 함축하는 신체와 정신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변용은 변용되는 신체의 한 상태에 관련이 있고, 따라서 변용시키는 신체의 현존을 함축한다.(질 들뢰즈(1981),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역)(서울: 민음사, 1999), p.77.)

목하고, 신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능력을 가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내림으로써 정신이 지닌 이성능력에만 몰두하던 철학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에 전환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는 『에티카』 제3부 정리 26에서 “인간의 마음이 외부의 물체를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로 지각하는 것은 오로지 몸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통해서이다.”¹²⁾를 통해 신체에 대한 긍정과 그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단순히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심신일원론적인 견해를 넘어서서 정신이 지닌 사유와 신체가 가지는 변용의 정서들이 서로의 관념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이미지, 표상과 표현, 경험과 감정, 상상과 정서의 내용들은 결코 열등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세계를 지각하고, 이성적인 사유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라반의 심신평행론적 신체와 무용예술에서의 의미

1. 라반의 사상과 에포트 이론

루돌프 라반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동작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다. 그는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우연히 목격한 종교의식에서 움직임에 통한 인간의 힘과 춤을 통해 자연과 우주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라반은 파리의 미술학교 에콜 드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서 의상과 극장디자인을 연구하던 중 웨이예(Raoul Auger Feuillet)의 무용기록법을 접하면서 무용기록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¹³⁾ 라반은 인간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모든 정교한 움직임을 포괄하고 이러한 움직임 표현의 본성을 나타내는 기록법 체계가 고안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단순히 무대패턴을 표기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몸의 부위들과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

12) 안토니오 다마지오(2003), p.246.

13) 신상미, 김재리(2010), 『몸과 움직임 읽기』(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2-21.

다. 그 결과 20세기 초 『키네토그래피 *Kinetography*』(1928)¹⁴⁾의 발간을 시작으로 그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라반의 에포트는 그가 움직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유키네틱스(Eukinetics)’의 용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다. 따라서 영어사전적인 의미보다 ‘Antrieb’라는 독일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rieb는 환경에 대한 내부 반응을 외부로 이끌어내는 동기, 혹은 의도를 의미한다.¹⁵⁾ 그는 인간이 동작을 행할 때, 그 동작이 지니는 잠재적인 충동 또는 원인을 에포트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다. 에포트 개념을 근거로 발전되는 라반의 동작원리 이론들은 『안무 *Choreographie*』(1926), 『공간조화 *Choreutics*』(1964) 등의 저서들로 발간되었다.

에포트는 흐름, 무게, 시간, 공간의 네 가지 인자(effort factors)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각각 상반되는 두 개의 요소들을 가진다. 그 내용을 간략히 열거해보자면, 흐름은 절제되거나 거침없이 흐르는 요소를 가지고, 무게는 무겁고 강하거나, 가볍고 약한 요소, 시간은 갑작스러워지거나 점차 느려지는 요소, 공간은 직시하거나 흩어진 요소에 따른 움직임의 특징을 가지며, 이 상반된 요소들 사이의 범주에서 에포트의 특질이 관찰될 수 있다. 에포트의 인자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라반의 움직임 연구들은 무용과 예술의 영역 뿐 아니라 1940년대 산업 현장에서도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인간의 삶에서 발견되는 모든 움직임들을 포함하게 된다.

라반의 에포트 개념과 일련의 움직임 연구들에 나타나는 핵심은 인간 신체의 움직임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인간의 내적 욕구인 에포트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¹⁶⁾ 이로부터 우리는 라반의 사상이 심신평행론적인 견해를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움직임에 대하여 단순하게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물

14) 이 책은 이후 미국에서 『라바노테이션 *Labanotatio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15) 앞의 책, p.80.

16) 김기화(2011), 라반의 Effort 요인들의 의미생성구조와 여덟 가지 기본 Effort Action 들의 정서적 기호해석 적용가능성 고찰, 『한국무용연구』 29(1), p.184.

리적인 신체부위의 조작으로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경험의 표현이자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내적 충동에 근거하여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반의 움직임 연구는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엄가르트 바르테니에프(Irmgard Bartenieff)의 바르테니에프 기초원리(Bartenieff Fundamentals), 그의 동료 워렌 램(Warren Lamb)의 에포트-셰이프 분석(Effort-shape Analysis)과 안무가 쿠르트 요스(Kurt Jooss), 마리 뷔그만(Mary Wigman)의 안무법을 비롯하여 무용이론, 움직임 교육, 치료, 연기 훈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적용, 발전되고 있다.

2. 라반의 심신평행론적 신체의 의미

라반의 에포트 이론과 움직임 연구들에서는 신체와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심신평행론적인 시각이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신체와 움직임 표현에 대한 라반의 연구들이 스피노자의 사유와 비교하면서 무용예술의 영역에서 그의 사상이 갖는 의미들을 생각해본다.

가. 신체 표현의 의미 인식

라반의 에포트는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동기를 뜻한다. 이러한 에포트 개념은 그가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연관되는 정신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피노자가 심신평행론적인 사유를 통해서 서양전통철학의 심신이원론이 부여한 정신과 신체의 차별적인 위치를 동등하게 재배치하고, 이성을 통한 사유와 인식만큼 신체의 경험과 변용을 강조했다면, 라반은 에포트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그의 움직임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외부적인 신체 움직임이 내부의 마음과 정서를 표출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신체와 그 움직임 표현의 가치를 제고시켰다.

라반과 스피노자는 심신평행론적인 견해 뿐 아니라 신체의 표현이 '정서'를 통해서 전달, 수용됨을 인정하고, 이러한 신체의 표현들을 어떠한 존재의 양태를 정

의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라반은 오랫동안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움직임의 유형과 특성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이는 17세기의 스피노자가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신체의 변용능력에 따라 구분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체의 움직임과 그 표현에 대한 라반의 연구는 무용의 오랜 역사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부정적인 신체성을 완전하게 전복시키는 동시에 무용작품에서 나타나는 춤추는 신체의 표현이 인간 정신과 심리에 근거한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임을 증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라반의 에포트 개념은 무용작품에 나타나는 춤추는 신체가 음악이나 연극, 혹은 마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된 예술 표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¹⁷⁾ 움직임의 의미를 이끌어내어 무용이 지닌 예술적인 특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나. 신체에 관한 과학적 사고

라반과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적 견해는 신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반은 자신의 움직임 연구로써 춤추는 신체를 비롯하여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했다. 그는 움직임의 기록과 분석에 있어서 신체의 외형적 이미지와 구조적인 형태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포트 유형의 분류를 통해서 움직임의 특질과 특성들을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스피노자가 신체의 표현과 정서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체의 구성을 무한한 다수의 분자로 정의하고, 한 신체의 개체성을 분자들의 정지와 운동, 느낌과 빠름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동역학적(dynamics)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면, 라반은 인간의 신체를 상체와 하체, 오른쪽과 왼쪽을 이루는 세부 단위들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즉, 상체를 이루는 머리, 목, 가슴, 척추 윗부분, 어깨관절, 견갑골, 팔, 팔뚝, 손목, 손, 손가락과 하체를 이루는 등과 배의 아랫부분, 골반, 엉덩이, 허벅지, 종아

17) 신상미, 김재리(2010), p.15.

리, 다리, 발, 발가락, 그리고 몸을 중심인 척추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며, 몸의 단위들을 몸통과 사지로 구분함으로써 이들 각 부위의 움직임 관찰,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반과 스피노자가 이처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신체와 그 움직임을 연구하고 사유하게 된 것은 심신평행론적인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고, 신체의 운동을 통해 정신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신체는 각각 에포트를 지각할 수 있는 움직임의 주체이자 정신의 사유 활동과 서로 연결되는 운동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스피노자는 신체로부터 이성의 논리에 대응하는 정서와 상상, 그리고 경험을 통해 관념을 구성하는 능력을 이끌어냈고, 라반은 에포트 이론에 따라 신체 움직임의 현상 자체에 몰입하기보다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무용예술에 있어서 라반의 과학적인 움직임 분석 및 기록체계들은 스피노자의 철학적 사유가 인간의 지성을 매개로 한 접근에서 더 나아가 춤추는 신체의 표현과 의미해석에 대하여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보다 주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 신체훈련을 통한 정신의 변화 가능성

라반과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적인 관점은 신체의 운동과 움직임을 통하여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심신이원론의 입장에 있는 철학자들이 신체를 이성을 통해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반면, 스피노자는 신체의 변용을 통한 심리와 정서의 변화가 이성이 관념을 구성하는 것과 평행을 이룬다고 본다. 즉 어떠한 신체가 자신의 신체를 규정하는 빠름과 느림의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변용을 이루었을 때, 신체는 다른 신체에 영향을 주거나 받으며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한 신체가 갖는 변용과 경험은 곧 그 신체의 사유가 갖는 관념의 양과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가 정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신체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다’¹⁸⁾는 신체의 변

18) 질 들뢰즈(1981), p.191.

용 능력은 절대적인 이성의 위치와 신체를 동등한 관계로 재배치 할 수 있게 한다.

라반 또한 스피노자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연구한 에포트를 신체의 훈련에 의해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피노자가 한 개체의 신체를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상태로 파악했다면, 라반은 움직임을 구성하는 에포트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라반의 움직임 교육은 물리적인 상태의 신체를 단련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에포트의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와 정서의 변화를 꾀한다. 몸의 외형적인 움직임을 보고 에포트를 분석하여 인간의 심리 상태나 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에포트를 의식하고 활용하면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의미 있는 움직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움직임을 통한 심리치료에 적용되거나, 신체의 조절을 통한 감정과 내적 변화를 나타내는 하는 예술 표현에 기여하게 된다.

IV. 결론

오늘날 루돌프 라반의 무용기록법과 움직임 분석의 체계들은 무용예술의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라반의 연구들이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은 물론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라반의 연구와 그 핵심이 되는 에포트 이론을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적인 시각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철학의 오랜 역사동안 신체는 정신과 이원화하여 분리됨과 동시에 차등적인 우열관계에서 사유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신체는 정신의 사유 활동에 대응하는 정서의 표현과 변용능력을 갖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의 철학에서 정신과 신체는 둘로 나뉘어 분리된 실체가 아닌 하나의 유일한 실체에 대한 양태들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피노자의 사유는 심신일원론 또는 심신동일론으로 논의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신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와 명제들, 그리고 신체의 변용이 관념을 구성하는 정신의 능력과 일치함을 강조하는 그의 심신평행론적 사유에 주목하였다.

스피노자가 ‘신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신과 신체 활동의 존재론적 동등함을 증명했다면, 라반은 ‘신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신체의 움직임과 그 원인이 되는 에포트의 관계를 밝힌다. 이와 같은 라반의 연구와 에포트 이론에서는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과 유사한 견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에포트 이론은 인간의 생각과 내적 감정이 움직임을 일으키며, 에포트의 훈련과 움직임 교육은 다시 생각과 감정, 성격, 기질을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예술적인 표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반의 심신평행론적인 신체는 춤추는 신체가 표현하는 의미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분석하는 과학적 사고와 체계들을 정립하며, 훈련을 통해 정신과 마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는 스피노자의 신체보다도 훨씬 더 삶에 가까운 차원에서 인간의 신체표현과 움직임들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움직임 교육과 훈련 방법을 구축함으로써 스피노자가 강조했던 신체를 변용시키는 다양한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다마지오, 안토니오(2003). 『스피노자의 뇌』. 임지원(역).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7.
- 데카르트, 르네(1644). 『철학의 원리』. 원석영(역). 서울: 아카넷. 2002.
- 들뢰즈, 질(1981).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역). 서울: 민음사. 1999.
- 박삼열(2012). 『스피노자의 『윤리학』연구』. 경기도: 선학사.
- 신상미, 김재리(2010). 『몸과 움직임 읽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스피노자, B.(1657). 『에티카』. 강영계(역). 서울: 서광사. 1990.
- 이성환, 박은옥(1999). 『합리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서울: 도서출판 백의.

김기화(2011). 라반의 Effort 요인들의 의미생성구조와 여덟 가지 기본 Effort Action들의 정서적 기호해석 적용가능성 고찰. 『한국무용연구』, 29(1): 177-208.

나일화(2008). 스피노자(B. Spinoza)의 심신일원론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신체와 표현의 의미. 『무용예술학연구』, 24: 29-55.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15일
심사일		10월	25일
심사완료일		11월	16일

Abstract

Laban's Psychophysical Parallelistic Body Viewed from the Reasoning of Spinoza

Ilhwa Na · Jeusun Lee

*Lecturer, Research Professor Dance Research Institute
Dance departm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Laban's effort theory in comparison with the reasoning of Spinoza, and to analyze the meanings of a psychophysical parallelistic view in dance art, which appear in common in Laban's theory and Spinoza's reasoning.

Laban's effort theory has been used widely not only currently in the dance field including choreography, education, and therapy, but also in diverse fields involving play, sports, cultural study, and communication. In the dance studies field, it has been composed mostly of realistic contents such as dance education, choreographer analysis, cultural anthropological study, and dance therapy. However, this study conducts a dance aesthetic consideration focusing on the psychophysical parallelistic view shown in the ideologies of Laban and Spinoza, which have not been studied yet. Laban's psychophysical parallelistic view enhanced the meaning of a dancing body by focusing on internal impulse which triggers movements. Also, the view added scientific way of thinking to the body and movements, and proved that it was able to bring about change in mentality through physical training.

keywords: 루돌프 라반(R. Laban), 스피노자(B. Spinoza), 심신평행론(psychophysical parallelism), 에포트(effort), 춤추는 신체(dancing body)